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Adolescents' Adjustment Behaviors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대학원생 이 재 구
부 교수 김 영 희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Graduate Student : Lee, Jae Goo

Associate Professor : Kim, Yeong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ental expectations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behavioral, school-based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59 adolescents(177 boys and 182 girls) in Cheong-ju City.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according to sex of adolescents'. Maternal pressure, support from mothers, and paternal pressure were significant factors predicting adolescents' relativ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Support and pressure from mothers were associated with adolescents' behavioral adjustment. The research suggest that maternal pressure was the strongest risk factors in relation to the effects of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I. 서론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의 적응력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의 적

응행동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아내어 그 변인에 대한 접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고, 대부분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적 관계를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신념이나 기대, 욕구로 인한 갈등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Brody, Arias, & Fincham, 1996; Emery, Fincham, Cummings, 1992).

Ryan과 Adams(1995)는 가족 갈등과 기능이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부모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대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더욱이 선행연구는 점차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나 학업에 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업기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ierman & Smoot, 1991; East, 1991; Ramsey, Walker, Shinn, O'Neill & Steiber, 1989).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와 청소년 간의 주된 갈등은 학업 문제와 많은 관련성이 있고 이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호숙(1998)도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기대 수준으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취하는 태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외적 자극이나 조건이 됨을 밝히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적응형태 중 학업성취도 보다는 학교 적응에서의 갈등(Ryan & Adams, 1995)을,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적응보다는 학업성취도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최규련, 1996). 또한 비행청소년이나 보호관찰소의 일탈청소년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학교적응이나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인 행동문제나 표출적인 행동문제를 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적응문제는 학교현장과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고, 앞으로 청소년의 적응의 개념을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두 가지 학업 기대유형은 지지와 압박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두 유형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ummings & Davies, 1994). 부모의 지지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하며, 압박은 심리적인 통제나 행동에 대한 압박을 뜻한다(Campbell, 1994). 다시 말하면 압박은 성취압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학습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의 과잉 관심으로 외적 동기화 즉 학습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효과에 따른 칭찬과 비난, 상, 벌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거칠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김중범, 1995). 압박과 달리 지지는 부모의 태도가 민주적이고 수용적이며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격려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현정 1997).

행동적·심리적인 지지와 압박이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적응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외국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압력과 공부독촉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만이 있을 뿐(서숙영, 1994) 청소년의 입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아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 적응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압박이 부모의 지지보다 청소년의 적응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지만 청소년의 적응 변인으로 심리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만으로 보고 있어 부모가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된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학업성취도 연구가 교육상담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고(유영주, 1990; 김현정, 1997; 정호숙, 1998) 사회인구학적인 배경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나 가정환경과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적응과의 관련 양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즉, 부모의 학업기대

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호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적응에 주요 원인이 되는 관계 측면에서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계 요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 학교적응,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교육, 청소년 상담, 교사의 진로 지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연령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1-1. 성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1-2. 연령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어떠한가?

2-1.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3.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4.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때 주위 환경과 심한 마찰을 경험하여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현실도피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내면적

이고도 심리적인 적응에 문제를 가져온다. 청소년이 계속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곤란을 느끼거나, 부모의 지도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중요한 지지 환경 잃음으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정과 부정적인 성격형성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Armsden & Greenberg, 1987; Wagner & Compass, 1990).

Emery 등(1992)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이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배경 갈등인 부모간의 갈등보다 청소년의 내면적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적응에 친구환경과 가족환경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친구환경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가족환경은 심리적 적응에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Collins & Repinski, 1996)

실제 청소년기 부모들은 청소년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들은 실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관계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rel & Burman, 1995). 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종섭(199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달리 Fauber, Forehand, Thomas, & Wieson(1990)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는 많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심리적 적응에는 설명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Cummings와 Davies(1994)는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가 청소년에게 외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내면적인 적응은 관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요인과 관련성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면서 청소년 연구의 심리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의 분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은 기존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Bogenschneider

(1997), DuBois 등(1993, 1994), Ketssetzis 등(1999), Teachman과 Paasch(1998), Veneziano와 Rohner(1998)는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여와 청소년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성과연령에 따라 부모의 학업에 대한 간섭이나 기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과 애착 및 의사소통의 결핍, 부모의 감독 소홀 등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선행연구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Jurich와 Jurich(1975)는 자녀에게 그들 자신의 목표, 규칙, 제한점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부모를 자유방임형 부모로 기술하고, 자유방임형 양육이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가출행동과 관계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규칙과 한계점을 결정하는 전권이 부모에게만 있는 전제적 양육방식도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가출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부모가 가정에서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은 친사회적·문제해결적으로 학교 적응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한 어머니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는 감소한다(Bronstein et al., 1993; East, 1991). Gerard와 Buchler(1999)는 경제적 어려움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행동과 상관성이 높았지만 외면적 문제행동은 부적절한 부모의 지도와 감독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냈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외, 1999). 또한 남자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은 주로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성에 따른 차이

를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며, 불순한 행동을 보여 주고, 비행을 일으키는 등 더 많은 외면적 문제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erick, 1998; Peterson, Sarigiani, & Kennedy, 1991). 이 연구결과에서는 남자 청소년은 외면적 문제행동에 더 많은 문제가 있고, 여자 청소년은 내면사회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일탈이나 비행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외면적 문제행동과 내면적 문제행동이 같이 내재되어 있어 남녀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3.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부모의 관심, 비정상적인 가족관계, 정서적 불안정, 가정의 분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목표달성, 성취동기나 행동의 기준에 대한 부모간의 의견 불일치, 부모의 지배성 등의 변인을 지적하고 있지만(Miller, 1970) 무엇보다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DuBois et al., 1993; Dubow et al., 1992).

김영아(1997)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으로 지각한 집단과 거부적으로 지각한 집단간, 자율적으로 지각한 집단과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집단간, 자율적으로 지각한 집단과 통제적으로 지각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가족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에 대하여 애정적 태도를 가지며,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실적인 권위와 규율의 정당성을 존중하며 정당한 태도로 대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전반적인 가족분위기나 가

족의 지지가 심리적으로 더 지지해 준다고 해서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Ketsetzi, 1998). Ketsetzi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나 가족의 지지보다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과 부모 개인이 맺는 관계특성이 더 설명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사들과 좋은 평가를 받고 본인도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다. DuBois (1994)도 전반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의 적응을 주요 생활환경인 학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Campbell과 Manddel (1990) 역시 청소년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업 성취가 높길 바라는 부모일수록 청소년의 부담감을 증가시키며 학업성취도는 저조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의 높은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비논리적인 기대는 아마도 부정적인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외국에서는 부모의 압박과 지지기대가 자녀들의 학교적응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Ryan & Adams, 1995),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적응보다는 학업성취도에 더 관련성이 높아(최귀련, 1996)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더불어 학업성취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4.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기대나 태도는 자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외적 자극이나 조건이 되어 자녀의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Gowan, 1960; Sutton, 1961; 권이중, 1993; DuBois et al., 1992; DuBois et al., 1993; Dubow et al., 1992). 부모의 관심 수준과 학업성취는 상관관계가 있고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유영주, 1990).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시험불안 수준을 증가시킴

으로써 그 결과 학업성취도가 저조해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영주(1990)의 연구와 같은 척도를 사용한 김현정(1997)의 연구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성적간에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r=.31, p<.001$).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높은 학업성취를 한 청소년의 가정은 함께 일을 하려 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그리고 가정의 일을 결정하는데 청소년을 포함시키려 하였다. 또한 찬성과 신용, 신뢰를 많이 보여주며, 지나치게 제한된 통제와 엄격한 훈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가정에서 전반적인 사기는 낮게 성취하는 학생의 가정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에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의 부모는 보다 강압적이고, 보다 지나치게 제한하며, 엄격하고 독단적인 체벌을 보다 많이 주고 지나치게 자녀를 보호하거나 과도하게 성취하도록 압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Morrow & Wilson, 1961). 또한 부모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지지적인 부모일수록, 즉 교육외적인 면을 강조할수록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Eastman, 1987; Steinberg & Brown, 1989; Steinberg, 1990).

그러나 Campbell과 Manddel(1990)은 청소년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학업 성취가 높길 바라는 부모일수록 청소년의 부담감을 증가시키며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높은 학업성취도를 요구하는 가족의 청소년은 지적 능력과 학업수행에 대한 인내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보다 높은 성취를 바라는 가족분위기에서 특히, 부모의 기대가 클수록 청소년들은 더 많은 불안을 나타냈고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을 덜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국 학업성취는 저조해진다고 설명하였다(Bioke, Gesten, Cowen, Felner, & Francis, 1978; Lorion, Cowen, Kraus, & Milling, 1977).

따라서,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을 압박기대와 지지기대로 나누어 본 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나 격려, 관심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또한 기대 유형을 압박기대와 지지기대로 나누어 본 연구가 거의 드문 실정이다(Douglas, 1969; Majorbanks, 1972; 조수영, 1980). 청소년의 적응행동을 연구한 국내의 연구들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 비행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계요인을 살펴본 것은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과 함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를 학교생활의 적응 구성요소로 보고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지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대상은 청주시에 있는 중학교 1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과 담임선생님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입시부담이 적고 비교적 학교 적응상태가 원만하여 담임교사의 평가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2학년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학생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학생용은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질문지를 완성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고, 교사용은 담임선생님이 개별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인 성적은 담임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허가를 얻기 어려워 편이표집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중학교를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질문지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1999년 10월 4일

부터 10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기간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조사는 남녀공학 중학교 남녀 각각 2개반 175명, 남자 고등학교 2개반 97명, 여자 고등학교 2개반 98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총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은 압박기대와 지지기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업기대 유형은 Campbell(1994)의 Inventory of Parental Influence(IPI)를 연구자가 수정·보완하고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다. 압박기대의 문항내용의 예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공부하는 것에 너무 많은 압박을 준다.”, “나는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표를 아버지(어머니)에게 보이는 것이 두렵다.”, 또는 “아버지(어머니)는 내 공부에 관한 것은 포기하신 것 같다.” 등이다. 지지기대의 문항은 “아버지(어머니)는 내 자신의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 같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다.”, 또는 “나는 내 또래의 아이에게는 아버지(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이루어졌다. 총 21문항으로 압박기대를 측정하는 13문항과 지지기대를 측정하는 8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화(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항상 그렇다)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압박기대와 지지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값은 아버지의 압박기대와 지지기대가 각각 .82, .70이고 어머니의 압박기대와 지지기대가 각각 .82, .70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적응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SCL-90-R(Derogatis et al., 1976)을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청소년이 갖고 있는 공격성, 우울·불안, 적대감 등으로 심리적인 부적응을 측정하였다. 총 32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측정하

였고(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항상 그렇다는 5 점),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32문항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행동적 적응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은 Simons, Johnson, & Congner(1994)가 청소년 연구에 사용하였던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지난 1년동안 어느 정도 비사회적 행동을 하였는가를 측정하는 16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화(1점은 전혀 없다, 5점은 10번 이상)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3) 학교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Gesten(1976)이 아동의 학교 적응 행동연구에 사용한 HRI(Health Resources Inventory)를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학교적응은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학생은 학급 일에 솔선수범한다.”, 또는 “이 학생은 리더역할을 한다.”와 같이 학생의 친구관계, 학업수행 태도, 리더쉽 등의 특성을 담임교사가 직접 설문지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총 3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2점 척도로서 그렇다는 1 점, 아니다는 2점으로 측정하였다. 총 39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97로 나타났다.

4) 학업성취도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담임교사가 직접 기재한 2학기 중간고사 학급성적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설문지 부수는 359부(97.0%)이었고,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t-

test, 상관관계,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으로 이루어졌다.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에서 .65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49.3%, 여학생 50.7%이고, 학교는 중학생 47.4%, 고등학생 5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53.5%, 58.8%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가 전체 중 81.3%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사무직(38.0%), 전문직(7.4%), 농수산업(6.9%), 생산/기술직(6.3%)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2.5%, 직업주부가 47.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40에서 45세 미만이 4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5세 이상(44.3%), 40세 미만(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은 40세에서 45세 미만이 48.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40세 미만(30.6%), 45세 이상(20.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이 전체 중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확대가족은 13.8%를 차지하였다.

주택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단독이 32.9%, 연립이 9.1%, 다세대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2. 성과 연령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1) 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부의 압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	177(49.3)
	녀	182(50.7)
	계	359(100)
학 교	중학교	170(47.4)
	고등학교	189(52.6)
	계	359(100)
아버지 학 력	중졸이하	66(18.7)
	고졸	189(53.5)
	대졸이상	98(27.8)
	계	353(100)
어머니 학 력	중졸이하	105(29.2)
	고졸	211(58.8)
	대졸이상	43(12.0)
	계	359(100)
아버지 직 업	전문직	26(7.4)
	관리/사무직	133(38.0)
	판매/서비스	145(41.4)
	농수산업	24(6.9)
	생산/기술직	22(6.3)
	계	350(100)
어머니 직 업	유	161(47.5)
	무	178(52.5)
	계	339(100)
부연령	40세 미만	35(9.7)
	40세-45세	165(46.0)
	45세 이상	159(44.3)
	계	352(100)
모연령	40세 미만	110(30.6)
	40세-45세	174(48.5)
	45세 이상	75(20.9)
	계	357(100)
가족형태	핵가족	301(86.2)
	확대가족	48(13.8)
	계	349(100)
주택형태	단독주택	115(32.9)
	아파트	173(49.4)
	연립주택	32(9.1)
	다세대주택	30(8.6)
	계	350(100)

($t=3.11, p<.01$), 모의 압박($t=2.66, p<.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학생에게 부모가 압박을 더 많이 하고, 여학생에게는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ampbell, 1994).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부모의 압박을 더 받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같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지지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압박이 청소년의 성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정호숙, 1998)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들에게 학업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준다.

2) 연령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모의 지지($t=1.9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중학생이 어머니로부터 더 학업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는 부모와 상호관련성을 많이 갖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라서 고등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더 심리적 지지를 받는다고 한 Silverberg와 Gondoli(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중학교는 입시와는 거리가 좁은 시기이고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보다는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학생 부모든, 고등학생 부모든 간에 교육에 관심이 많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3.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1)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4〉와 같이 모의 압박($\beta=.39$), 모의 지지($\beta=-.20$), 부의 압박($\beta=.21$), 성별($\beta=.18$), 연령($\beta=.10$)

<표 2> 성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변인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부	압박	남학생	171	2.64	.58
		여학생	174	2.43	.67
	지지	남학생	171	3.26	.66
		여학생	178	3.12	.69
모	압박	남학생	171	2.75	.58
		여학생	176	2.57	.65
	지지	남학생	173	3.49	.66
		여학생	180	3.40	.64

**p<.01

<표 3> 연령에 따른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

변인	범주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부	압박	중학교	161	2.57	.70
		고등학교	184	2.51	.57
	지지	중학교	165	3.23	.72
		고등학교	184	3.15	.62
모	압박	중학교	160	2.69	.64
		고등학교	187	2.63	.60
	지지	중학교	166	3.52	.68
		고등학교	187	3.38	.62

*p<.05

<표 4>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
심리적 적응	모압박	.39	.39***	.24	.22	18.92***
	부압박	.21	.21**			
	모지지	-.18	-.20**			
	성별(여=1)	.22	.18***			
	연령(고=1)	.13	.10*			

***p<.001 **p<.01 *p<.05

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22% 설명해 준다. 즉,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압박이 높을수록,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많다. 이는 Ketssetzis(1998)가 밝힌 바와 같이 부모가 학업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할수록 청소년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가져와 심

리적인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2)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5>와 같이 연령($\beta=.37$)으로 청소년의 행동적

〈표 5〉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
행동적 적응	연령(고=1)	.38	.37***	.14	.13	50.03***

**p<.01 *p<.05

적응을 13% 설명해 준다. 즉, 남학생일수록 청소년은 비행, 음주, 무단가출, 결석과 같은 일탈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accoby와 Martin (1983)의 연구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학업에 대한 압박이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는 어머니와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압박과 지지는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국의 청소년보다 행동적인 부적응 문제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6〉과 같이 모의 압박($\beta=.26$), 부의 지지($\beta=-.19$), 연령($\beta=-.18$)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7% 설명해 준다. 즉,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이 높을수록, 아버지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중학생일수록

청소년은 학교적응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과 과제를 같이 하는 등 같은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밝히고 있다(Epstein, J. L., & Lee, S., 199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학업기대가 성적에만 치중되어 있고 성적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히려 부모의 학업기대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긴장하거나 또래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7〉과 같이 모의 압박($\beta=.32$), 모의 지지($\beta=-.18$), 부의 압박($\beta=.16$)으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12% 설명해 준다. 즉,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아

〈표 6〉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
학교적응	모압박	.88	.26**	.09	.07	4.67**
	부지지	-.57	-.19*			
	연령(고=1)	-.11	-.18*			

**p<.01 *p<.05

〈표 7〉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R ²	F
성적	모압박	.78	.32***	.13	.12	16.13***
	모지지	-.41	-.18**			
	부압박	.39	.16*			

***p<.001 **p<.01 *p<.05

버지로부터 압박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 이는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기대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ampbell & Manddel, 199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은 부모의 압박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지는 차이가 없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압박을 더 많이 느낀다.

둘째, 연령에 따라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은 어머니의 지지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압박, 모의 지지, 부의 압박, 성, 연령이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압박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여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많은 문제를 갖는다.

넷째,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이다. 즉, 고등학생일수록 청소년의 행동 적응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압박과 부의 지지, 연령이다. 즉, 어머니로부터 압박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지지가 낮을수록, 중학생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문제를 갖는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압박, 모의 지지, 부의 압박이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압박이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지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부모

의 학업기대 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부모의 기대유형 중, 어머니의 압박이 청소년의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표집설계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미래연구는 청소년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 고등학생등으로 임의표집하여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특성을 제외하고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미래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에 대한 인내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변인 변인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Sharp과 Cowie(1998)의 연구와 같이, 청소년의 적응 상태를 청소년의 측정, 부모의 측정, 교사의 측정 모두를 비교 연구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부모의 학업기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못지 않게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 다시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 보아야 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학업기대간의 관계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자녀에 대한 학업열기가 일본과 더불어 매우 높아 입시, 성적, 과외로 인한 스트레스가 팽배하다. 이와 더불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대상이 고3 수험생에서 다른 학년이나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수준으로까지 낮아지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생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권이중(1993). 청소년의 이해-변화하는 세계속의 청소년-. 체육청소년부.
- 2) 김영아(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종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적의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김현정(1997).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 불안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서숙영(1994). 가정의 환경적인 과정변인과 아동의 학업성적의 관계-성취압력과 공부독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유영주(1990).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과잉관심이 아동의 시험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중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 8) 정호숙(1998). 부모의 교육적 태도와 시험불안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조수영(1980). 학업성적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 147-160
- 11) Armsden, G. C., & Greenberg, M. Y.(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289-296.
- 12) Bierman, K. L., & Smoot, D. L.(1991). Linking family characteristics with poor peer relations: The mediating role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341-356.
- 13) Bogenschneider, K.(1997).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schooling: Aproximal process with transcultural valid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718-733.
- 14) Boike, M. F., Gesten, E. L., Cowen, E. L., Felner, R. D., & Francis, R.(1978). Relations between family background problems and school problems young normal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15, 283-290.
- 15) Brody, G. H., Arias, U., & Fincham, F. 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16) Bronstein, P., Clauson, J., Frankel Stoll, M., & Abrams, C. L.(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 268-276.
- 17) Campbell, J. R., & Manddel, F.(1990). Connection math achievement to parental influenc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5, 64-74.
- 18) Campbell, J. R.(1994). Developing cross-cultural/cross-national instruments: Using cross-national methods and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675-684.
- 19) Cummings, E. M., & Davies, P. T.(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213-221.
- 20) Derogatis, L., Richkel, K. & Rock, A. F.(1976). The SCL-90 and the MMPI: A step in the vlia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 128, 280-289.
- 21) Douglas, A. W.(1969). *The home and the school studies in British society*.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 22)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3, 542-547.
- 23)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Phillips, R. S. C., & Lease, A. M.(1993). *Preliminary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self-esteem for young adolescents: The self-esteem questionnair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24)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25)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1992).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26) East, P. L.(1991).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withdrawn, aggressive, and sociable children: Child and parent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37, 425-444.
- 27) Eastman, G.(1987). *Family involvement in education*. Paper prepared for 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Madison, WI.
- 28) Emery, R. E., Fincham, F. D., & Cummings, E. M.(1992). Parenting in context: Systemic thinking about parental conflict and its influence o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909-912.
- 29) Epstein, J. L., & Lee, S.(1995). National patterns of school and family connections in the middle grades. In B. A. Ryan, G. R. Adams, T. P. Gullotta, R. P. Weissberg, & R. L. Hampton(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108-154). Thousand Oak, CA: Sage.
- 30) Erel, O., & Burman, B.(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31)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32) Gerard, J. M., & Buehler, C.(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43-361.
- 33) Gesten, E. L.(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5), 775-786.
- 34) Gowan, J. C.(1960). Factor of achievement in high school and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 91-95.
- 35) Jurich, A. P. & Jurich, J. A.(1975). The lost adolescent syndrome. *Family Coordinator*, 24, 357-361.
- 36)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characteristic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74-387.
- 37) Lorion, R. P., Cowen, E. S., Kraus, R. M., & Milling, L. S.(1977).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 142-148.
- 38)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ew York: Wiley.
- 39) Majoribanks, K.(1972). Ethn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mental 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 Sociology*, 78, 323-336.
- 40) Miller, G. W.(1970). Factors in school achievement and social cla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4), 260-269.
- 41) Morrow, R. W., & Wilson, R. C.(1961). Family relations of bright-achieving and underachieving high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2, 501-510.
- 42) Petersen, A.C., Sarigiani, P.A., & Kennedy, R.E.(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43) Ramsey, E., Walker, M. M., Shinn, M., O'Neill, R.E., & Steiber, S.(1989). Parent management practices and school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18, 513-525.
- 44) Ryan, B. .. & Adams, G. R.(1995).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s model. In B.A. Ryan, G. R. Adams, T. P. Gullotta, R. P. Weissberg, & R. L. Hampton (Eds.). *The family-school connec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3-28). Thousand Oaks, CA: Sage.
- 45) Sharp, S. & Cowie, H.(1998). *Counselling and supporting in distressed children*. Thousand Oak, CA: Sage.
- 46) Simons, R. L., Johnson, C., & Conger, R. 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591-607.
- 47) Steinberg, L.(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In S. S. Feldman and G. R. Elliot(Eds), *At the ther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48) Steinberg, L., & Brown, B. B.(1989). *Beyond the classroom: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high school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 49) Stevenson, D. L., & Baker, D. P.(1987). The family-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50) Teachman, J. D., & Paasch, K.(1998). The family and educ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704-714.
- 51) Veneziano, R. A., & Rohner, R.P.(1998). Perceived paternal acceptance, paternal involvement, and youths'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 rural, biracial Southern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35-343.
- 52) Wagner, B. M. & Compass, B. E.(1990). Gender, instrumentality, and expressivity: Moder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383-406.